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40 증권투자신탁(H)[채권혼합]

2024년 05월말 기준

##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유럽지역 기업의 주식 관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재간접형 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식모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Pan European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853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21억 원

## 펀드유형

혼합채권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편입비 : 40% 이하

## 설정일

(운용펀드 : 2016년 04월 25일)

- 클래스 C-E : 2016년 04월 28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6년 06월 21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04월 03일

## 벤치마크

MSCI Europe Index 35%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Call 5%

## 신탁업자

국민은행

## 월 중 환헤지 비중 88.6%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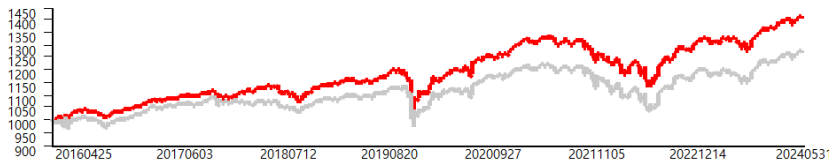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49%	2.12%	5.71%	7.70%	13.40%	7.17%	24.14%	41.00%
클래스 C-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P(퇴직연금)	1.40%	1.86%	5.17%	6.59%	11.09%	3.91%	17.93%	29.63%
클래스 C-P(퇴직연금)E	1.43%	1.94%	5.35%	6.96%	11.84%	4.97%	19.94%	22.29%
벤치마크	1.33%	2.16%	5.55%	7.85%	11.15%	5.15%	18.43%	27.07%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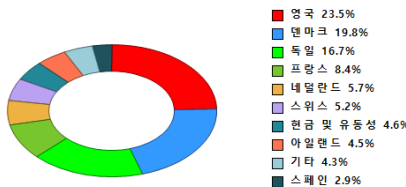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05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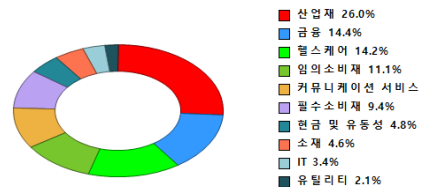
### <전체>



### <국가별> - 피투자펀드 기준



### <주식 업종별> - 피투자펀드 기준



##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05월말, 피투자펀드 주식비중)

종목명	비중(%)
NOVO NORDISK A/S	8.0
AIB GROUP PLC	4.7
SCHNEIDER ELECTRIC SE	4.6
SCOUT24 SE	4.1
ING GROEP NV	3.7
CTS EVENTIM AG & CO KGAA	3.6
RELX PLC	3.5
SAP SE	3.4
UNILEVER PLC	3.3
ALK ABELLO A/S	3.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 보수 및 수수료

####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E : 총 연 0.792% (판매 0.45%)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03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692%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282%,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7% 이내
- 클래스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 클래스C/C-E/C-P2(연금저축):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5월 유럽 증시는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부동산, 산업재 업종 순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에너지, 소비재 업종 순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5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개선된 47.3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 PMI는 53.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6%를 기록하면서 직전월 대비 반등하였습니다. 5월 중 ECB 통화정책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월 초, 예상보다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FOMC 결과와 미국 4월 고용 둔화 및 CPI 컨센 부합 발표에 추가 긴축 경계 다소 해소되며 미 국제 강세에 연동되어 국내 시장도 강세장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월 중반 이후 미 연준 위원들의 물가 안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매파적 스탠스의 발언과 미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국내 금리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추가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과 고금리 유지 시사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로 통방문에서 '물가 불확실성' 문구가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으로 변화된 것은 금리 상승 요인이었으나, 금통위원 1인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점과 수정경제전망에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컨센 수준인 2.5%로 상향 조정하고 우려했던 물가 전망치는 유지한 점은 채권시장 우호적 재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근원 물가의 꾸준한 둔화세와 더불어 중동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고 국제 유가가 4월 고점 대비 낮아진 점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로존 4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는 각각 47.4와 53.3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 PMI는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며 3월부터는 3개월 연속으로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상회하였습니다. 종합 PMI가 지속적인 개선을 보임에 따라, 유로존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제조업 지수는 50을 하회하고 있으나 전월 대비 큰 폭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수요지표인 신규 주문지수가 44.1에서 47.5로 큰 폭 개선을 보였으며, 생산 지수 역시 47.3에서 49.6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유로존의 실질 소득 회복이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로존 제조업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여건 또한 개선됨에 따라 무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유럽 제조업에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나라별로는 남부 유럽의 경기가 북부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ECB의 10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현재 시장에서는 유럽의 금리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ECB는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경기둔화 압력의 확산으로 유로존 경제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면서, 향후 금리인하 여부와 그 시점이 유럽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에 탄탄한 펀드멘털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에 장기간 투자하고자 하며, 심층적인 리서치에 기반한 상향식 투자접근법을 사용하여 종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빠른 실적, 판매 증가가 아닌, 희소가치를 보유하고나 시장 내 경쟁기업들 대비 더 높은 경쟁력과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 성장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5월 금통위는 시장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하였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및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 등이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방문에서 '소비자물가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에서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으로 문구가 변화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헤드라인 CPI가 2.3~2.4%로 추세적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포워드 가이드는 금통위원 6인 중 1인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소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GDP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고, 2025년은 2.3%에서 2.1%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024년 2.6%, 2025년 2.1% 유지하였습니다.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지만 내수와 수출의 괴리가 크며, 물가의 상승압력이 전망치를 바꿀 정도로 큰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의 과잉 긴축과 조기 완화 리스크가 상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월 FOMC 이후 파울 의장은 고용 악화 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성명서에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6월부터 QT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하 기대는 후퇴했으나 하반기 인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주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어지며 고금리 유지 시사하고 다수의 위원들 인플레이션 위험 현실화할 경우 추가 긴축 가능성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물가가 지속적으로 2% 목표에 접근하고 있어 6월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따라 6월 ECB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 주요 인사들의 지속적인 매파적 스탠스 확인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은 9월 혹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중립금리 추정 상향 가능성은 인하 폭 불확실성을 시사하여 금리 하방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유로존을 제외한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ECB는 6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